

#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 연방의 분리주의 원인 분석 -체첸 공화국을 중심으로-

이 주 희, 은 성 태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 I. 서론
- II. 분리주의 動因의 이론적 분석 틀
- III. 체첸민족의 분리주의 원인 분석
  - A. 근본주의적 시각
  - B. 도구주의적 시각
  - C. 자원동원의 시각
  - D. 상대적 박탈감
  - E. 동원화와 리더십
- IV. 결론

## 한글초록

본 논고는 'Kathleen M. Dowley와 Daniel S. Treisman'의 분리주의 이론을 분석의 틀로서 적용하여 체첸민족의 분리주의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체첸분쟁은 근본적으로 러시아와 체첸의 이질적인 민족적 뿌리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러시아 내부 또는 체첸 내부에서 권력장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 정치적인 측면도 있고,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충돌이라는 종교적 측면도 내재해 있으며, 서방과 러시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이해가 교차하는 국제적 측면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체첸 분리주의는 정치적·경제적·제도적 측면 모두를 고려한 폭넓은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러시아 연방과는 독립적인 애초의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는 근본주의적 시각, 자원을 매개로하여 협상력을 설명하는 도구주의적 시각, 연방 내에서의 행정적 지위로 분리주의 및 협상력의 정도를 규명하는 자원동원의 시각, 연방 내 다른 집단에 비해 고통을 당한 경험, 즉 상대적 박탈감을 강조하는 시각, 민족적 조직을 세울 수 있는 민족 구성원의 동원여부와 지도자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분리주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 이상의 5가지 시각을 체첸 분리주의의 動因으로 상정하였다.

## I. 서론

체첸분쟁<sup>1)</sup>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단순히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고

자 하는 체첸인들의 확고한 의지와 체첸 독립을 반대하는 러시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족분쟁이라고 일축하기에는 러시아와 체첸의 악연(惡緣)의 세월은 참으로 길다. 체첸 분쟁은 근본적으로 러시아와 체첸의 이질적인 민족적 뿌리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러시아 내부 또는 체첸 내부에서 권력장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 정치적인 측면도 있고,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충돌이라는 종교적 측면도 내재해 있으며, 서방과 러시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이해가 교차하는 국제적 측면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람잔 카디로프를 대통령으로하는 親러정권이 수립된 현재에도 그 역사적 악연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강경한 체첸민족의 분리주의 성향이 향후 러시아의 정치적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아울러 민족간·지역간 갈등을 통합하는데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 예로 최근 체첸 공화국에 인접한 잉구셰티야와 다게스탄에서 체첸에 기반을 둔 무장단체와 연계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sup>2)</sup> 러시아연방 출범 이후 두 차례의 체첸분쟁을 비롯하여 북오세티야-잉구쉬 분쟁,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그루지아 공화국 내의 압하지야 분쟁 그리고 최근 남오세티야 자치공화국 분리독립 문제를 놓고 벌인 그루지아와의 유혈충돌까지, 많은 곤혹을 치른 러시아로서는 이러한 간헐적인 교전 충돌이 국가 안보차원에서 여간 부담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체첸민족으로 하여금 분리주의를 추구하도록 고무하는가? 다른 공화국들은 단순히 자치권의 획득을 요구하는데 반해 체첸 공화국은 왜 완전한 분리독립을 요구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제정러시아가 16세기 북카프카즈<sup>3)</sup> 지역으로의 영토팽창을 피하면 서부터 생겨난 反러감정, 즉 과거의 역사적 굴레에서 비롯된 갈등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또한 산악민족인 체첸민족은 민족기질 자체가 공격적이고 반항적이라든지, 러시아 민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언어, 인종, 종교, 풍습, 문화에서 원인을 규명하는 근본주의적 시각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상기와 동일한 요인을 가진 여타 민족들이 순탄하게 러시아 연방에 편입되는 과정을 고려해볼 때, 체첸공화국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이해를 둘러싼 내부적·외부적 변수를 유념해볼 때, 기존의 시각에서 체첸 분리주의를 규명하기에는 다소 한계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즉 정치적·경제적·제도적 측면 모두를 고려한 폭넓은 분석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Kathleen M. Dowley와 Daniel S. Treisman'의 분리주의 이론을 분석의 틀로서 적용하여 체첸민족의 분리주의를 고찰하고자

1) 제1차 전쟁(1994년 12월-1996년 8월), 제2차 전쟁(1999년 9월-현재)  
러시아는 체첸민족을 '테러리스트',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체첸민족은 자신을 '독립운동가'라고 여긴다. 두 차례의 체첸전쟁에 있어서도 양측의 인식이 다른데, 러시아는 체첸을 일종의 독립국가로서 인정하지 않기에, 對체첸전쟁을 '체첸분쟁', '對테러작전', '反테러작전'이라고 명명하는 반면에, 체첸은 이를 '민족해방전쟁', '독립전쟁'이라고 부른다. 현 국제사회에서 체첸전쟁이라는 명칭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본 논고 역시 체첸사태를 '체첸전쟁'이라고 규정하겠다.

2) 세계일보, "러시아 분리독립 유혈충돌 계속되나... 잉구셰티야서 러시아군 피습 11명 사상", 2008.10.20 기사(검색일: 2008.11.1); 매일경제, "러, 다게스탄서 반군 공격으로 경찰 7명 숨져", 2008.10.21 기사(검색일: 2008.11.1).

3) 현재 북카프카즈에는 러시아 연방의 6개 공화국, 1개 주, 2개 변경주가 위치해 있으면서, 19개 소수민족 집단과 러시아인들이 거주하는 등 민족적, 언어적으로 많은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구체적으로는 다게스탄 공화국, 북오세티야 공화국, 카라체예보-체르케시야 공화국, 카바르디노-발카르 공화국, 체첸 공화국, 잉구셰티야 공화국, 로스토프 오블라스뜨, 크라스노다르 크라이, 스타브로폴 크라이 등이다. 이들 민족집단은 민족, 언어 유형을 기준으로 대체로 알타이계, 인도 유럽어계, 이베로 카프카즈계 등 3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것들의 하위 집단은 각자의 민족어를 가진 다수의 민족집단으로 구분된다. 박태성, "러시아의 북카프카즈 병합과정과 의미", 『슬라브학보』, 제21권 1호(2005), p. 114 참조.

한다. 과연 어떤 이론적 시각이 체첸민족의 분리주의 동인(動因)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는가? 각각의 이론이 분리주의 강도(強度)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를 연구하는 것이 본 논고의 목적이다.

논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상기의 분리주의 이론을 소개할 것이다. 두 학자의 이론을 접목하여 분리주의의 5가지 동인을 본 논지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5가지 동인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체첸민족의 분리주의를 규명할 것이다. 마지막 4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더불어 체첸민족의 분리주의가 오늘날에 갖는 함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 II. 분리주의 動因의 이론적 분석 틀

체첸-잉구세티아 외에 타타르스탄, 코미, 사하-야쿠치야 자치 공화국 등 러시아 연방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체첸이 주목받는 것은 체첸분쟁이 러시아 연방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분리주의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 체첸 분리주의를 분석하기 이전에 민족적 분리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Kathleen M. Dowley와 Daniel S. Treisman의 이론에 근거<sup>4)</sup>하여 한 민족의 분리독립 운동은 분리주의 강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때, 분리주의는 다음 다섯 가지 동인에 의해 결정됨을 볼 수 있다.

그 첫 째가 Kathleen M. Dowley의 주장인 근본주의적 시각(Primordialist)이다. 같은 맥락으로 Daniel S. Treisman은 민족적 자기 인식(Ethnic Self-Identifications)을 언급했다. 이것은 지역 지도자가 추진하게 되는 분리주의의 강도는 민족 정체성 인식, 다시 말해 민족적 자기 인식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즉 구성원의 민족, 문화, 언어, 종교적 공통성의 정도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민족적 자기인식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혹은 정치적 운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념의 시대였던 소련 시절에는 민족문제가 불거져 나오지는 않았다. 이는 소수민족들의 민족적 자각이 소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비밀경찰과 권위적인 공산당에 의한 감시와 억압 때문에 억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이 시작되면서 중앙의 통제가 느슨해졌을 때 민족주의가 동시 다발적으로 비등(沸騰)하여 구소련, 구유고 연방 그리고 동구권이 붕괴되었다.<sup>5)</sup> 다시 말해서 소련의 민족정책이 모든 민족을 포용하는 상위적 정체성으로서의 사회주의 민족의식을 생성·발전시키는데는 실패하였지만, 선전과 억압 등 사회 공학적인 수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소수 민족의 주체성이 정치 운동으로 전개되지 못하도록 하는데는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6)</sup>

분리주의 성향의 두 번째 발생 동인은 Kathleen M. Dowley의 주장인 도구주의적 시각

4) 본 논고의 제2장은 다음의 두 논문을 같은 맥락끼리 묶어 분류하여 적용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Kathleen M. Dowley, "Striking the Feeral Bargain in Russia: Comparative Regional Government Strategie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31, No. 4, 1998.; Daniel S. Treisman, "Russia's ethnic Revival : The Separatist Activism of Regional Leaders in a Postcommunist Order", 『World Politics』, Jan 1997.

5) 이와 같은 주장을 소위 "Pressure cooker theory"라고 부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Branko Milanovic, "Why Have Communist Federations Collapsed?", Callenge 37(March-April), 1994 참조.

6) 고상두, "러시아 연방주의 현실과 체첸분쟁", 『국제정치논총』, 제37권 2호, 1997, p. 81.

(instrumentalist)이다. 이는 Daniel S. Treisman의 협상력(Bargaining Power), 특히 협상력의 차이를 ‘게임의 이득(The Payoffs of the game)’으로 설명하는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이는 민족성이란 상황에 따라 만들어 질 수 있고 재창조 될 수 있는 다양한 의식 중 하나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같은 시각에서 보면, 소연방 시절 억압당했던 민족이 소연방붕괴 후 반드시 자치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소련에서도 체첸, 잉구세티아, 북오세티아를 제외하고 고유언어와 국적에 대한 논란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민족자치 운동이 차별적 대우에 대한 일종의 대응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도구적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쟁점은 천연자원의 통제권, 지방별 세율, 외국과의 자율적 통상협정 체결권 등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이 많았다.

특별히 자원을 많이 보유한 지역의 주지사는 자율성과 독립을 요구할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한데, 실제로 부유한 지역에서는 경제 엘리트와 정치 엘리트의 정경유착 가능성이 더 크고, 한 지역의 경제 엘리트와 정치 엘리트 단결이 강할수록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도 단결력을 보여준다. 결국 한 지역이 가진 경제적 동인은 독립으로부터의 기대이익을 높여줄과 동시에 독립을 못하더라도 후퇴에 대한 보상으로서 중앙으로부터 더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최고의 협상력이 된다. 아울러 중앙이 지역생산에 대한 의존도가 클수록 제제를 부과하는 정도도 클 것이다.

소수 민족의 분리주의 성향을 설명하는 세 번째 동인은 Kathleen M. Dowley의 주장인 자원동원의 시각(resource mobilization school)과 Daniel S. Treisman의 행정상의 지위를 통한 협상력(Bargaining Power through the administrative levels)이다. 이는 과거 소련의 연방 제도에서 공식적 자치권을 가졌고 민족 집단의 정치적 기반으로 그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받는 지역이 그렇지 않았던 지역보다, 붕괴시작 후의 분리 운동과 관련한 중앙과의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이다. 즉 여러 지역의 협상력이 다른 것은 협상을 지배하는 제도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행정지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80년대 말 동원화의 시초에서 러시아의 민족 집단은 자치공화국, 자치주이거나 자치구였었다. 자치공화국은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어 있었고 자치주나 자치구보다 훨씬 큰 권리와 중앙에서의 대표성을 가졌다. 이에 따라 당에 충성하는 지역 고유의 엘리트층을 만드는 정책은 공화국에서 더욱 진행되었으며 모국어 교육도 허용되었다. 또한 공화국 지도자에게 더 좋은 행정 수준에서의 경험과 중앙과의 협상을 위한 더 큰 제도적 자원이 주어졌다. 따라서 공화국들이 제도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진 지역보다 분리주의 정도가 강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네 번째 중요한 동인은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 school) 강조하는 시각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좌절감을 민족 집단의 정치적 행동의 일차적 동기로 본다. Kathleen M. Dowley의 이 같은 시각에서 보면 과거 연방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은 연방과의 새로운 협상에서 탈퇴하려는 성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지역 행위자의 관점에서, 비용-편익 평가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귀착된다. “우리는 중앙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제공하고, 연방 내 다른 주에 비해 무엇을 얻어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중앙으로부터의 보조금이나 투자에 비해 더 많은 연방 예산을 지불했는가? 우리 주변의 주들에 비해 우리의 삶의 기준은 더 나은 편인가 혹은 나쁜 편인가?” 이 같은 상대적 박탈감 이론의 견지에서는 인간의 기대 가치와 그들의 가치 실현 능력 사이의 불일치는 실제의 불일치 정도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sup>7)</sup>

7) Gurr. T, "Why Men Rebe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p. 17.

마지막으로 중요한 동인은 Daniel S. Treisman가 제시한 동원화(Mobilization)와 리더십 특성(Leadership Characteristics)이다. 이는 집단행동을 위해 얼마만큼 민족이 조직되고 동원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분리주의 운동 지도자에 관한 고찰이다. 소수민족이 조직적으로 동원되기 위해서는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 전래적인 거주 지역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유리하고, 개인주의 보다 전통적인 단합주의가 사회의 중요한 조직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게다가 소수 민족의 지도자가 자기 민족에게 분리운동에 대한 동기 부여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조직과 동원을 위한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sup>8)</sup>

어떤 수준의 분리주의 운동이 민족과 지역 차원에서 순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 여부는 지도자 자체의 제도적 자원, 이해관계, 위험 감수 성향, 자기 인식에 의존한다. 요컨대 연방정부에 의해서 임명되었거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주저할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 연방을 살펴보면, 대통령 지명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가 있는 지역이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가 있는 지역보다 덜 공격적이었다. 예컨대 옐친 집권기 때 자치주와 자치구의 행정수반은 옐친에 의해 지명되었기 때문에 선거에 의한 공화국의 행정수반보다는 대통령에게 예속된 경우가 많았다.

요컨대 근본주의적 시각은 러시아 연방과 독립적인 애초의 민족 정체성, 민족적 자기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구주의적 시각은 자원을 통한 지방의 더 큰 협상력을 설명한다. 자원동원 시각은 지역의 지위 고하(高下) 여부가 분리주의 및 협상력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대적 박탈을 강조하는 시각은 연방 내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고통을 받는 개인·집단의 시각에 초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동원화와 리더십 특성은 민족적 조직을 세울 수 있는 민족 구성원의 동원여부와 지도자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분리적 성향을 결정한다고 본다.

### III. 체첸민족의 분리주의 원인 분석

#### A. 근본주의적 시각

민족적 자기 인식 즉 민족 정체성은 독자적인 종교, 문화, 언어의 형성 및 발달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러한 근본주의적 시각에서 체첸민족을 바라보면 그토록 강한 분리주의 성향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오늘날까지도 체첸인들의 민족적 자각을 자극하는 동인은 북카프카즈 전체에 뿌리내린 씨족공동체적인 집단 구조와 전통 관습법, 또한 이슬람 문화와 산악인 정체성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 (1) 전통적 구조를 통한 정체성 형성

체첸민족의 전통적 사회에 있어 '타입(taip)'<sup>9)</sup>은 자치적인 씨족공동체들로 구성된 조직체인데, 대다수 체첸주민들은 바로 자신들이 소속된 타입에 대한 강한 충성심과 긴밀한 유대

8) 고상두, op. cit., p. 81.

9) 체첸사회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은 '타입(taip)'이다 타입은 동일한 조상을 가지며 부족과 친족 그리고 이웃을 포괄하는 공동체 단위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최한우, 『중앙아시아학 입문』, 서울: 퍼네기, 1997, pp. 511-512 참조

감을 근간으로 대인적 혹은 사회적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sup>10)</sup> 타입은 동일한 조상을 가지며 부족과 친족, 이웃을 포괄하는 공동체 단위로서 체첸에는 이러한 공동체가 약 165-170개가 있다.<sup>11)</sup> 체첸 사회는 전통적 씨족사회이며 일종의 부족사회의 틀을 가지고 있다. 체첸 민족은 족외혼의 전통을 지키고, 아버지 및 조상 이름을 따는 부칭 관습을 계승한다. 일반적으로 타입의 구성은 약 200호로 구성된 마을 두세 개를 합한 규모에 해당된다. 소단위로 '네케(nek'e)' 혹은 '가르(gar)'라고 한다. 이는 10내지 50호로 이루어져있다. 씨족 어른들로 구성되는 장로회<sup>12)</sup>가 있으며 전통적으로 무슬림 형제 결속을 강조하는 이슬람 수피집단의 관습이 매우 강하게 남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sup>13)</sup>

아울러 체첸은 과거의 전통관습법인 '아다트'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민족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아다트는 무슬림 공동체가 형성되기 이전의 원칙, 혹은 일반 규칙과 법적 효력이다. '일반적 관습법'으로 해석된다. 아다트는 이슬람이 체첸민족에게 전파되기 이전부터 북카프카스에 존재하였고 모든 생활 관습의 일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북카프카즈 지역에서 가장 늦게 이슬람이 전파된 체첸<sup>14)</sup>이기에 아다트의 영향을 받은 기간이 더 길었다고 할 수 있다.

아다트의 많은 규칙들이 씨족 공동체 사회나 유목 민족 연합체의 규정이나 관습으로 정립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5)</sup> 예컨대 대표적인 아다트의 종류 중에 '피의 복수'라는 것이 있다. 이는 자신이 속한 씨족이 아닌 다른 씨족 공동체 사회에서나 혹은 같은 씨족사회에서도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거나 신체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동일한 방식으로 복수를 하는 관습을 말한다. 이는 씨족 사회나 친족 사회의 공동체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이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수호하기 위해 상대편 공동체의 구성원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행동까지도 수반한다.<sup>16)</sup> 이러한 측면에서 부족공동체적인 전통적 구조에 의해 강한 결속력을 지닌 체첸은 분리 독립을 지향하는 강렬한 주체적 자각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타입과 아다트가 분리주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설명은 근거가 부족하다. 이 같은 요인이 체첸민족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정체성에 영향을 준 것은 자명한 일이겠으나 체첸만의 전통이라기보다는 다케스탄, 북오세티아 등, 북카프카즈 지역에 공존한 전통이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전통아래 살아온 다케스탄의 체첸과 다른 행보를 주목해볼 수 있다. 1999년 8월 바샤예프가 이끄는 체첸반군이 '체첸-다케스탄 이슬람 공화국' 수립을 기치(旗幟)로 다케스탄을 침략하면서 제2차 체첸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케스탄은 오히려 러시아 연방에 남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체첸과의 차별성을 보였다. 따라서 전통적 구조에 의한 체첸

10) 박정호, "북카프카즈 지역분쟁의 정치 경제적 요인 분석-체첸분쟁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21권, 제2호(2005. 12). 체첸은 타입이라는 씨족공동체 조직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상 근대적 의미의 국가체제 형성경험은 부재하였다. 그 대신에 '투크흠(Тукхум)'이라는 타입들의 집합체이자, 군사·경제연합체가 외적의 침입에 대한 공동방어 및 경제활동증진 등과 같은 주요한 국가적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다.

11) Moskovskie novosti, 33/1994, p. 11.; 고상두, op. cit., p. 90에서 재인용.

12) 장로회 모임은 모든 타입의 상위개념으로 정해진 법에 따라 각 타입들을 통치한다.

13) 정세진, "북카프카즈 민족 정체성에 대한 연구", 『슬라브학보』, 제28권, 제1호(2007), p. 430.

14) 체첸이 언제 이슬람을 수용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체첸 인접 지역인 다케스탄에는 7세기 이래로 이슬람이 수용되기 시작했는데, 체첸이 이슬람을 받아들인 계기는 16세기 이후로 이웃 민족인 다케스탄의 민족들에 의해서이다. 17세기에 들어서서 체첸 사회의 지배적인 종교는 이슬람이 되었다. 어떤 점에서 체첸의 이슬람 수용은 역사적으로는 장구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세진, op. cit., "북카프카즈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제28권 1호(2007.8), p. 411 참조.

15) 정세진, op. cit., pp. 411-415.

16) Ibid., p. 413.; Vladimir Galin, "체첸, 복수는 확대 재생산된다", (한겨레 21 주간지의 특집기사 제328호, 2000. 10. 12).

분리주의 설명에는 다소 한계가 따른다.

## (2) 이슬람과 지형적 특성을 통한 정체성 형성

이슬람과 산악지대라는 지형적 특성은 북카프카즈 지역이 가진 공통적 배경이겠으나, 체첸 분리주의를 설명해주는 특이성도 내포하고 있다. 체첸에 뿌리내린 이슬람이 체첸민족의 종교적 정체성으로 발전했음과 동시에 역사적으로 되풀이되어 온 반러시아 운동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제공하였다는 점, 또한 산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민족 특유의 기질과 독특한 전통을 잉태하는 태생적 정체성으로 전화(轉化)된 점이 그것이다.

러시아 역사에 있어서 이슬람은 줄곧 체제 안정화를 해치는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다루어져왔다. 그리고 최근의 민주화 이행기에서도 이슬람은 방해물로 인식되고 있다.<sup>17)</sup> 그렇지 않아도 이슬람은 러시아정교와 무신론을 바탕으로 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는 다른 변별적 문화로 간주되어왔는데, 더욱이 이슬람이 반정부와 연계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체첸의 이슬람적 결속에 대한 대응으로서 소련은 체첸민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취시키려고 하였으며, 이에 이슬람을 정치적으로 역이용(逆利用)하였다. 체첸공화국에 대한 KGB의 기록을 예로 들면, 1965년 체첸에서는 한해에만 16건의 그룹 충돌이 있었고 이 중 대다수가 참혹한 범죄였다고 한다. 185명이 총과 칼에 의한 중상을 입었고 19명이 치명상이었다고 적고 있다. 1966년은 14주 기간 동안 26건의 살인사건과 60건의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분석들은 대부분 국가 정보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따라서 왜곡되고 과장된 측면이 많았다.<sup>18)</sup> 즉 소련 당국은 체첸민족들 사이에 퍼진 이슬람 원리주의가 사건의 배경이라고 단정지으면서 체첸민족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 결과적으로 체첸의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의 앞서 언급된 선전과 보도들이 소련 사회에 그대로 퍼져 체첸민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같은 소련의 이슬람의 정치적 역이용은 이슬람 원리주의(Islamic fundamentalism)와의 연계혐의로 몰아붙여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한 오늘날 푸틴의 체첸분쟁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즉 자국이 '국제 테러리즘'과 싸우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체첸의 분리독립 운동에 응징을 가했던 셈이다. 과연 이슬람이 체첸 분리주의에 영향을 미쳤을까? 또한 이슬람적 결속이 러시아에게 있어 그토록 위협적인 요소였는가?

처음에 이슬람은 수많은 종족들로 구성되어있고 다양한 언어를 구하고 있는 카프카스인들을 하나로 묶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슬람은 분리주의 운동을 위해 체첸인들을 단합시키는 구심점이 되어갔고, 과격 이슬람인 와하비즘<sup>19)</sup>을 분리주의를 추진하는 수단으로 채택함에 따라 러시아인들의 체첸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증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샤밀바사예프 같은 민족 분리주의 지도자가 와하비즘에 고

17) Galina Yemelianova, "Ethnic Nationalism, Islam and Russian Politics in the North Caucasus," Christopher Williams · Thanasis D. Sfikas (ed.), *Ethnicity and Nationalism in Russia, the CIS and the Baltic States* (Ashgat: USA, 1999), pp. 123-124.

18) 유의정, "체첸-러시아 분쟁에 관한 연구: 체첸의 문화와 사회적 특징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 16권 2호 (2000), P. 75.

19) 와하비즘은 무력이나 폭력사용을 하는 성전을 통한 이슬람의 원리에 바탕을 둔 정치사회의 실현을 목표로하는 과격한 이슬람 원리주의 종파 중의 하나이다. 북카프카즈 지역의 와하비즘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현승수, "북카프카즈 와합주의 문제의 기원", 『슬라브연구』, 제20권 1호(2004), PP. 165-180를 참조.

무되면서 체첸 분리주의는 과격성을 띠기 시작했다.

1991년 체첸공화국 초대 대통령의 분리독립 운동에 의해 발발된 1차 전쟁(1994년 12월 -1996년 8월)에서 체첸은 수도 그로즈니를 탈환하면서 러시아 군에 대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 그러나 전후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체첸 분리주의는 체첸이라는 틀을 벗어나 북카프카즈 전체를 겨냥한 정복사업으로 전화되었고, 저항의 이데올로기와 투쟁의 성격도 점차로 변질되어 갔다. 더욱이 제2차 체첸 전쟁이 시작되는 1999년 8월 이후부터는 ‘이슬람 국가’ 건설을 창도하는 분리주의 운동이 노골화되었다.<sup>20)</sup> 예컨대 체첸은 다게스탄을 러시아 지배에서 해방시켜 이슬람 국가를 수립하기위해 다게스탄을 침입하였다. 더욱이 극단적 체첸분리주의자들의 사주를 받거나 그들의 소행으로 간주되는 폭탄 테러들이 러시아 전역에서 일어남으로써 체첸 분리주의에 대한 탄압은 한층 더 고조되었다.

두 차례의 전쟁 이후에도 1995년 6월 체첸반군이 체첸공화국 인근 부조놉스크지역의 병원을 급습하고 러시아인 천여명을 인질로하여 체첸으로부터 러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한 사건, 2001년 12월 러시아군과 체첸 반군 교전(양측 200여명 사망), 2002년 8월 체첸 반군 러시아 Mi-26수송헬기 격추(121명 사망), 2002년 10월 체첸 반군 모스크바 문화궁전 인질극(관람객 129명, 인질범 41명 사망), 2002년 12월 그로즈니 체첸 정부청사 자폭 테러(70여명 사망), 2003년 5월 체첸 제2도시 구데르메스 이슬람 사원 반군 자폭 테러(16명 사망), 2003년 12월 스타브로폴주 열차 폭탄 테러(44명 사망, 200여명 부상), 2004년 2월 모스크바 지하철 폭탄 테러(30명 사망, 100여명 부상), 2004년 8월 체첸 반군 러시아 여객기 테러(90명 사망), 2004년 9월 체첸 반군 북오세티아 공화국 베슬란시 초등학교 기습테러(330여명 사망), 2005년 10월 체첸반군 카바르디노-발카르 자치공화국 수도 날치크 공공기관 기습테러(70여명 사망) 등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sup>21)</sup>

간헐적 무력분쟁이 지금까지도 자행되어오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체첸 분리주의에 있어 이슬람적 동인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푸틴이 체첸 분리독립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도 이 같은 이슬람적 동인이 체첸 분리주의 운동의 강도와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체첸이 위치한 북카프카즈 지역이 자카프카지예와 더불어 동양과 서양, 유럽과 아시아, 북반부와 남반부,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 흑해와 카스피해 지역이 교차하는 문명의 접점지대이자,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터키 및 이란 등 중동국가로 진출하는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러시아 연방이 국가적 통일성을 다지고 국제무대에서 옛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카프카즈 지역의 안정적 관리가 불가피하고 하겠다. 즉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체첸 분리주의 운동은 여타 연방주체들의 ‘분리독립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고, 더욱이 체첸이 이슬람 원리주의가 확산될 수 있는 최적지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일례로, 체첸 주변에는 카바르디노-발카르 공화국과 같이 체첸 이슬람의 세력 근거지가 있으며, 해외에도 이란 및 터키와 같이 이슬람이라는 동일한 종교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암묵적인 협력국가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제정 러시아 및 소련시기 중앙의 강제적인 이주정책에 의해 타국으로 추방되었던 체첸 민족들이 해외에서 ‘체첸 디아스포라’를 구성하면서 체첸 분리주의의 절대적인 국외지원세력<sup>22)</sup>으로 활동하고 있다.

20) 현승수, “체첸전쟁과 국제 이슬람 무자헤딘 운동”,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7권 2집(2007), P. 109.

체첸은 다게스탄, 잉구세티아, 북오세티아 공화국을 하나로 통합한 이슬람 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21) 기연수, “러시아의 新국가전략과 北카프카즈 지역의 지정학적 의의”, 『슬라브학보』, 제22권 1호 (2006), pp. 64-65.

22) 박정호, op. cit., pp. 58-59 (2005. 12).



그렇다면 체첸은 오랜 시간 러시아와의 갈등에서 어떻게 이슬람 정체성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소련 시기 70년간을 거쳐 오늘날까지도 이슬람이 강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수피 타리카’의 활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슬람의 수피파(Sufi brotherhood)는 지하활동을 전전하며 언제나 스스로를 러시아인들로부터 고립시키고, 러시아어를 배우거나 러시아인들에 의해 조직된 단체, 예를 들면 피오네르, 콤포몰, 공산당 및 노조 등에 가입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소련 당국으로부터 비난받았다.<sup>23)</sup> 간단히 말해서 체첸민족을 선동하고, 통일된 힘으로 이끌어하는 핵심이었다.

북카프카즈지역을 연구하는 러시아학자들은 이러한 수피파 형제애와 이들에 의해 수행되는 저항운동을 ‘Muridism’이라고 표현하고, 그 구성원들을 단순히 ‘병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라 부른다. 이 형제애는 신비스러운 교리의 실천에 헌신한다. 또한 신의 이름으로 일치단결하는 실천과정에 헌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운동은 이슬람 세계에서 나타나는 수도승의 질서체계와 별반 차이가 없다.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이 형제애 역시 조직의 장으로서 ‘murshid’가 있고, 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을 맹세하는 엄격한 제자들이 있다. 북카프카즈 지역에서 수피파 형제애의 첫 번째 murshid는 ‘야라퀴(Mulla Mnhammad Yaraqı)’라고 알려져 있다. 야라퀴는 자신의 제자 중 한사람이 ‘가지 모하메드(Ghazi Mnhammad 혹은 Ghazi Mulla)’라 명하고, 그를 체첸지역의 ‘이맘(Imam)’으로 임명하였다. 이어 가지 모하메드의 제자 중 하나가 지도자의 지위를 계승받는다. 그 사람이 바로 체첸의 영웅으로 등장하여 러시아에 장기간 투쟁하였던 진철적인 인물 ‘샤밀(Shamil)’이었다.<sup>24)</sup> 궁극적으로 이슬람이 분리 독립운동의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일종의 수단임과 동시에 분리주의를 이끄는 민족적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잉태하는 동인이 되었음은 자명하다.

근본주의적 시각에서의 분리주의를 규명하는 다른 한 가지 동인은 체첸민족이 타민족에 비해 태생적(胎生的)으로 강인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산악 유목민족이었던 체첸민족이 험난한 자연과의 투쟁, 그리고 주변 이민족과의 전쟁을 거치며 생존해왔던 것이 있다. 따라서 무(武)를 숭상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대가족을 중심으로 한 소농목축 경제구조였던 관계로 가족은 생산단위이자 전투 단위였던 것이다. 따라서 체첸인들은 어릴 때부터 말타고 총쏘는 법을 배웠으며, 일찍부터 전사로 길러졌다. 이로 인해 체첸인들은 거칠고 강인한 기질<sup>25)</sup>을 갖게 되었는데 마치 그러한 성향들을 표현하려는 듯, 스스로를 ‘외로운 늑대’라고 불렀다. 늑대<sup>26)</sup>는 죽일 수는 있어도 길들일 수는 없다는 의미를 함축한 것

23) 현승수, "북카프카즈 민족주의에 관한 연구", 『러시아지역연구』 (서울: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연구소, 1997), pp. 126-127.

24) 황성우, "러시아의 카프카즈 병합과정", 『카프카즈 저널』,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제5호 (2004. 5), pp.18-19.

25) 카프카스 민족들 가운데 외세의 침략에 완강히 저항해 온 대표적인 민족이 톨스토이의 소설 "코사크 인"의 주인공들인 체첸 민족이다. 체첸인들은 일반적으로 곱슬머리에 키가 크고 백색인종이며, 훌쭉한 대신에 강인한 체력을 소유하고 있다. 손님 접대를 최대한의 미덕으로 생각하지만 남에게 굽히지 않는 강한 자존심으로도 유명하다. 체첸민족은 1859년 러시아에 정복당했지만, 이슬람 수피종단을 배경으로 조직화된 체첸민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러시아에 반기를 들었다. 한 마디로 단 한 차례도 러시아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을 정도로 자존심이 강하고 끈질기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민족이다. 체첸인들은 스스로를 카프카스의 20여개 민족 중 최고 용맹 집단으로 내세운다.

26) 러시아의 저명한 민족학자인 ‘Tishkov’는 분리주의자들이 늑대를 상징으로 한 이유는 체첸 민족 정체성의 낭만적 비전과 이상이며 늑대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신화적 열망으로 복합적 민족 정서의 강력한 요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Valery. A Tishkov, "Ethnicity, nationalism and conflict in the after the Soviet Union",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PRIO),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UNRISD), 1997, pp. 186-187참조.

으로 체첸인들의 결사의지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 체첸에서는 한 때 늑대를 국기 문장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체첸전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야전에서의 전사(戰死)가 ‘지기트’<sup>27)</sup>의 최대 명예이며, 가족과 씨족 그리고 민족을 수호하다가 전사하면 천국으로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체가 살아있는 한, 계속 생명이 이어진다는 ‘공동체적 생명관’도 지니고 있다. 이는 내가 죽더라도 자식이 살아있으면 생명이 계속 이어진다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다산(多産)을 중요하게 여기며 특히 아들을 선호한다. 여러 차례 멸족 위기를 맞이한 역사적 경험이 있는 체첸인들이 인구 문제에 민감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즉 체첸인들의 입장에서 다산정책이란 멸족을 방지하려는 실용주의적 관점인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체첸사회에서는 일부다처제의 풍습을 전쟁미망인과 고아문제를 해결하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요컨대 앞서 근본주의적 시각에서 체첸 분리주의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처음의 씨족공동체적 집단 구조나 아다트라라는 관습법은 요소로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이슬람과 산악인 정체성은 분리주의와 그 강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타 민족과 다른 종교, 언어 등이 분리주의의 동인이 된다는 근본주의 시각을 다른 공화국의 예에 적용해보면 다른 차원의 문제가 제기된다.

## B. 도구주의적 시각

체첸공화국은 러시아연방 21개 공화국 가운데, 타타르스탄, 사하 공화국과 더불어 경제적 자립조건이 가장 좋은 연방 구성공화국 중 하나이다. 우선 체첸 공화국은 비옥한 평야 지대를 확보하고 있어서 풍부한 농산물로 인해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나 생산량이 충분하여 오늘날 두 차례의 체첸 전쟁으로 인한 생산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체 소비는 물론 대외 수출을 위해서도 충분하다고 하겠다.<sup>28)</sup>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1860년에 이미 석유를 생산하였다. 그 후 그로즈니 시가지에서 대규모의 유전이 발견되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스타브로폴 지역에서 새 유전이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전세계 석유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던 소련으로서는 체첸지역의 석유자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였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체첸의 수도인 그로즈니는 19세기말 블라디 카프카즈 철도가 부설되면서부터 원유 채굴산업이 크게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곳은 교통의 중심지로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 남카프카즈 지역 공화국들과 중앙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송유관과 가스관 등 물류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전략적 거점지대였다.<sup>29)</sup>

그렇다면 당시 체첸의 석유 생산량의 특징은 어떠했고 과연 러시아의 지경학적 이해와 어

27) [지기트]란 카프카즈 지역의 전사(戰士:Warrior)를 일컫는 말로서, 서구의 기사나 일본의 무사 개념과 유사하다. 다른 점이라면 고정된 신분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용맹과 의리 그리고 도덕성을 보인 카프카스인 이면 그 누구나 [지기트]가 될 수 있다. 체첸어로는 [코나흐]라 불리는 [지기트]는 체첸인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명예로운 칭호이다.

28) 기연수, op. cit., p. 66. 체첸의 지형은 영토의 정 가운데를 흐르는 제렉(Терек) 강을 중심으로 반은 카프카즈 산맥에 걸쳐있고 반은 넓은 평야로 구성되어 있다. 체르노젬으로 불리는 비옥한 옥토로 인해 쌀, 밀 등이 풍부한 곡창지대이다.

29) Mike Bowker, "Conflict in Chechnya", 『Russian Politics under Putin』, Manchester University, 2004, p. 256.

는 정도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 자원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체첸이 갖는 협상력은 어느 정도 일까? 소연방 붕괴전야인 1990년 러시아 공화국의 총 석유 생산량 5억 1618.3만톤 가운데 대략 420.5만톤이 체첸 지역에서 생산되었다. 이 당시 체첸의 석유 생산량 규모는 러시아 공화국 전체 석유 생산량의 약 0.82%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기 체첸 지역 석유 생산량 순위가 89개 러시아 연방주체들 가운데 10위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체첸 지역 석유자원의 경제적 회소가치가 작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러시아 국가의 체첸이행의 혼란과 1994년, 1999년 두 차례에 걸친 체첸 전쟁이 발생함에 따라, 체첸 지역 석유생산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2002년 기준 러시아 연방 전체 석유 생산량 3억 7956만 톤 가운데 체첸 지역에서의 석유 생산량은 149.3만톤으로 (89개의 연방 주체들 가운데 16위)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 초반에 비해 대략 3배 정도가 줄어든 수치였다. 체첸에서 석유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는 전쟁으로 인한 원유 생산시설의 파괴 및 기존 생산설비의 노후화, 자본투자의 감소 등에 기인한다.<sup>30)</sup><표1참조>

<표 1> 카프카즈 지역 석유 산출량 (단위: 천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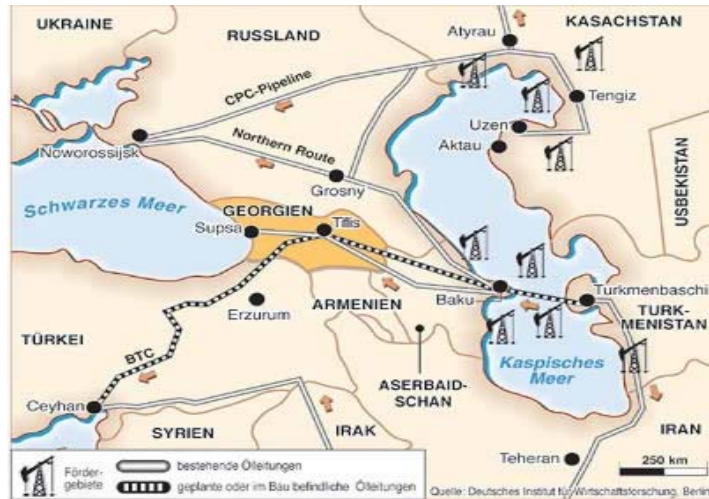
	1990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전체
북 카프카즈 지역	11,976	10,056	10,636	11,582	12,324	4위
아디게야공화국	18	0.7	0.8	1.3	1.0	33위
다게스탄공화국	636	361	327	345	337	21위
잉구셰티야공화국	4,205	137	164	188	146	24위
카바르디노발카르공화국	-	10	9	10	10	29위
칼미키공화국	455	242	248	269	237	23위
북오세티야공화국	-	5	7	5	4	31위
체첸공화국	4,205	126	73	722	1,493	16위
크라스노다르변강주	1,995	1,579	1,716	1,787	1,847	14위
스타보폴변강주	1,776	920	1,022	1,079	1,015	17위
아스트라한주	771	3,073	3,441	3,703	3,826	11위
볼고그라드주	2,120	3,063	3,629	3,471	3,407	12위
로스토프주	-	-	-	3	2.1	32위

출처: 김상원, "러시아의 국가전략으로서 북카프카즈 에너지 경제학", 『슬라브학회』, 제22권 1호 (2006), p. 81에서 재인용

여기서 다시 제기되는 의문은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의 지경학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닌데다, 두 번의 전쟁 발생 후로는 생산량도 감소추세에 있는데 러시아는 왜 체첸의 분리주의에 그토록 민감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카스피해에서 흑해로 연결되는 송유관이 바로 체첸지역을 직접적으로 관통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체첸 지역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체첸의 수도인 그로즈니를 경유해 흑해연안 러시아 노보로스스크로 향하는 북부노선이 있다. 이 노선은 체첸을 90마일이나 경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에게 에너지 안보 위협을 제공한다. 아울러 카스피해 북동부(카자흐스탄 북서부) 텐기즈유전으로부터 체첸의 그로즈니를 거쳐 흑해의 러시아 항구 노보로스스크까지 연결되는 CPC 노선이 하나 있다. <그림1 참조>

30) 박정호, op. cit., pp. 61-62.

<그림 1> 체첸지역의 송유관 노선



출처: <http://redgreenandblue.org/2008/08/18/georgian-situation-continues-the-quest-for-the-prize-of-oil-money-and-power/>

송유관 확보가 가지는 의미는 우선 국가가 자원을 통제하고 있음을 말한다. 통관료의 안정적인 수입을 제쳐놓더라도 에너지 공급을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정치적 힘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송유관이 지리 경제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의미는 합법적인 혹은 비합법적인 자원에의 접근이다. 실제로 이런 일은 체첸공화국의 전 대통령인 두다예프 집권 기간에 일어났다. 석유가 체첸 파이프라인에서 옮겨지는 과정에 도난당한 것이다. 이런 행위는 탈취하는 측에게 무상의 석유를 제공하는 한편, 파이프라인을 관리하고 있는 체첸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러시아에게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sup>31)</sup>

상기 송유관의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체첸공화국은 엄청난 경제적 자산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동시에 분리 독립 운동의 자신감 및 협상력을 높여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자원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자립의 자신감이 체첸민족의 분리주의를 자극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체첸의 독립은 곧 송유관에 대한 통제권 상실을 의미하기에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으로 작용한 셈이다.

### C. 자원동원의 시각

러시아 연방관계 하에서 공식적 자치권의 소유 여부, 즉 행정상 지위의 고하(高下)가 분리주의 정도와 중앙과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원동원적 시각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명이다. 이 같은 시각에서 러시아 연방을 바라보면 공화국의 지위를 가진 지역이 자치구, 자치주처럼 상대적으로 행정적 지위가 낮은 지역보다 분리주의가 강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우선 러시아 연방은 총 21개 공화국(республика), 6개 지방(krai), 49개 주(oblasy), 1자치주, 10개 자치구(okrug), 2 연방특별시(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총 89개의 행정

31) 김상원, op. cit., p. 85.

단위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구성은 원칙적으로 민족이라는 기준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소련시절 스탈린이 제안한 민족적 특성에 따른 연방국가 건설 형식과 같은 맥락이다. 이른바 민족-영토원칙에 따라 어느 지역에 어느 한 민족이 대다수를 차지할 경우 그 민족명에 따른 자치주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민족구성의 기준이 충족된다고 해서 모든 민족들이 연방형성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려인은 10만 여명이 되지만, 자치지역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자치지역을 가지는지의 여부와 어떤 행정단위 수준의 자치지역을 가지는가에 따라 개별 민족의 정치적인 권한과 영향력이 달라지게 되는데, 왜 자치권을 인정받는 민족과 자치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민족이 생겼는지, 그리고, 왜 민족에 따라 공화국, 현, 주, 자치구역 등의 다양한 위상을 부여받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 기준은 없다. 러시아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위계적인 질서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양상은 중앙과 지방과의 갈등과 타협구조 속에서 역사적으로 형성 발전된 것이다.<sup>32)</sup>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인구 120만에 불과했던 러시아 연방의 체첸민족이 공화국 지위를 인정받고 유지해왔다는 사실은 분리주의와 관련한 보다 나은 협상력을 가지게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때 협상력과 분리주의의 강도는 러시아 연방관계 즉 중앙-지방관계의 발전 과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 (1) 옐친 시기 연방 내 체첸공화국의 협상력

냉전도 끝나갈 무렵, 여러 신흥제국이 탄생함과 동시에, 1991년 11월 체첸 공화국도 독립을 선언했다.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은 對 체첸 군사개입을 시도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비상사태 선포 3일 만에 병력을 철수시켰다. 대신 의회는 체첸의 독립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1992년 12월 체첸-잉구쉬 자치공화국을 부여하여 체첸만의 자치공화국 수립을 승인하였다. 이 같은 러시아 정부의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체첸은 1992년 초 체결되었던 러시아 연방 구성조약에 불참했다. 또한 1993년 12월에 실시된 러시아 연방 상·하원 선거에도 참여를 거부해 탈러 독립 의사를 분명히 했다.<sup>33)</sup> 결국 소련 붕괴 시기부터 본격화 된 체첸의 분리주의는 1994년부터 96년까지 제2차 체첸전쟁으로 귀결되었다.

체첸공화국이 이상의 협상적 이득을 챙길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앞서 언급한 연방관계의 발전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먼저, 옐친 정부는 1990년대 체제전환에 따른 정치·경제적 혼란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옐친 정부는 우선적으로 정치적 안정과 국가적 통일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러시아 연방 출범 직후 ‘주권 행렬’로 명명되는 분리주의의 확산과 국가붕괴의 위험성이 증대함에 따라, 중앙정부도 연방관계의 개선과 확립을 국가적 사활(死活)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sup>34)</sup>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옐친은 지방정부에게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지위 부여 및 경제적 권한 양도를 통해 상호간 이익의 균형과 합의를 모색하였다. 이는 1992년 3월 연방조약의 체결로 구체화 되었다.<sup>35)</sup> 여기서 연방조약 체결의 정치적 합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32) Cord Jakobeit/Alparslan Yenel (Hg.), Gesamteuropa, Bonn 1993, p. 154. 고상두, op. cit., p. 82에서 재인용.

33) 홍완석, "힘난한 여정, 러시아의 체첸 분쟁: 원인과 경과, 그리고 전망" (국제정치학회 2005 여름 정기학술회 발표), p. 244.

34) 박정호, "러시아 연방관계의 법적 고찰", 『슬라브학보』, 제22권, 제1호 (2006).

35) Э. А. Баграмов, Разделит участь Союза ССР? : Крнзис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и феде-

수 있겠다.

첫째, 연방조약은 연방국가 운영 및 기능화의 핵심전제인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관할대상을 실제적으로 구분해 줌으로써 새로운 연방관계 수립과 발전을 위한 근본토대를 마련해주었다. 둘째, 연방조약은 러시아 국가의 체첸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된 연방정책의 결과물인데, 이는 지방의 분리주의 경향의 확산 차단과 국가적 단일성 보존이라는 고시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셋째, 연방조약의 체결로 인해 민족 공화국들 뿐 아니라, 러시아의 모든 지역들이 러시아 연방체제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자치지역 거주민들은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식적인 통로를 마련하게 되었다.<sup>36)</sup>

하지만 이러한 연방조약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음 한 가지 제약요인을 내재적으로 배태(胚胎)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즉 연방의 현이나 주와 같은 하부 행정조직이 가지지 못하는 특권을 공화국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이다.<sup>37)</sup> 그 결과 지방 지도자들 사이에 공화국의 지위를 얻고자 경쟁적 욕망이 일게 되었고, 기득권을 획득한 민족과의 불화로 발전되었다.<sup>38)</sup> 이와 더불어, 불안정한 정국상황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입지강화 노력을 가속화 한 지방적 차원의 분리주의 움직임들이 발생하였다. 물론 공화국의 지위가 가지는 협상력이 분리 독립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와 연방조약 체결을 거부하였던 체첸은 타타르스탄 공화국과 함께 연방으로의 조세납부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이어 1993년 4월 엘친은 新연방헌법을 통해 이전의 연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강력한 중앙권력화를 시도하였지만 분리주의 움직임은 계속되었다. 엘친으로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다. 무엇보다도 연방조약의 체결 및 헌법의 승인 자체를 거부했던 타타르스탄, 특히 체첸공화국을 러시아 연방의 완전한 일원으로 유인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에 엘친은 1994년 4월부터 민족 공화국들 및 여타 지역들과 쌍무조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체결된 조약(1994년 2월 타타르스탄 공화국과의 쌍무조약), 선린우호 관계를 확립할 필요성에 의해 체결된 조약(카바르디노-발카리아 공화국과 북 오세티아 공화국과의 쌍무조약), 민족 공화국들과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권한에 있어서의 평등을 추구했던 지역들과의 조약(크라스노다르 지역, 오렌부르크 지역, 스페틀롭스키 지

---

ральн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Москва : РНИСиНП, 1993), с. 40. Ibid., p. 4에서 재인용.

36) Ibid., p. 5.

37) 우선 연방조약은 연방정부와 공화국이 갖는 권한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다. 연방정부만이 가지는 권한(연방조약 제1조)과 연방정부와 공화국이 동시에 가지는 권한(연방조약 제2조)을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권한은 모두 공화국에 속한다.

**첫째**, 자치권을 획득한 민족은 공화국 내에서 자신의 언어를 공식어로 지정할 수 있다.

**둘째**, 공화국은 헌법을 가질 수 있고, 국가로서의 체계를 가지는 데에 비해, 현과 주는 헌법이 아닌 규칙으로서 정치권력을 행사하며, 공화국과 달리 현과 주의 행정수반은 대통령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 토지 및 지하자원 그리고 식물과 동물과 같은 천연자원은 해당 공화국의 영토에 거주하는 인민의 재산으로 간주됨에 따라 공화국의 재산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공화국의 동의 없이 지하자원과 자연자원을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사유화의 경우 공화국 정부는 역내 연방재산의 매각 시 판매대금의 20%를, 공화국의 재산일 경우에는 55%를 가진다.

**넷째**, 공화국은 연방헌법과 연방조약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관계와 대외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다섯째**, 연방정부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공화국의 영토에 진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화국이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공화국은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연방과 함께 가지는 공동권한의 행사를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질 경우에 연방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신형직, 『러시아의 정치』, 1995, pp. 256-257에서 발췌.

38) 심현용, "소비에트 민족정책에 대한 재평가: 과도기 러시아연방에 대한 시사점", 『中蘇研究』, 통권 88호 (2000/2001) p. 124.

역), 해당 연방주체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의해 체결된 조약(부라티아 공화국, 칼리닌그라드 지역) 등이다.<sup>39)</sup> 옐친 시기 쌍무조약을 매개로 한 연방정책은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존재하였던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줌으로써 지방의 분리주의 경향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고 보인다. 특별히 체첸에 견줄 만큼 분리주의가 강했던 타타르스탄의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었는데, 이는 상기 공화국의 요구를 반영한 체결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체첸은 왜 협상에 임하지 않았냐는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당시 쌍무협정은 경제·농업정책, 무역, 방위산업의 전환, 천연자원의 통제, 대외관계의 영역에 관한 것이 주요 내용인 바, 이러한 영역과 관련하여 기타 공화국보다 우위의 입장에 있었던 체첸으로서는 협상을 통한 이득도모 보다는 완전한 독립이 타산(打算)적으로 적합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즉 체첸은 타타르스탄보다 더 많은 협상카드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옐친 시기의 공화국 우선주의 원칙은 공화국의 협상력을 높여주었으며 제1차 체첸전쟁을 비롯한 제2차 전쟁의 양상으로까지 이어질 만큼의 강도 높은 분리주의를 추구하는 동인이 되었다. 아울러 비록 분리주의적 투쟁이 연방에서 완전히 탈퇴를 얻어내지 못하더라도 원하는 만큼의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타타르스탄의 선례는 자원동원적 시각의 타당성을 보충해준다고 하겠다.

## (2) 푸틴 시기 연방 내 체첸공화국의 협상력

협상력과 분리주의의 강도는 러시아 연방관계 즉 중앙-지방관계의 발전 과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상기의 주장을 떠올려 볼 때, 체첸이 갖는 제도상의 지위는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상력과 분리주의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옐친 집권 시기에 모스크바 중앙을 제외한 지역의 전 부문, 즉 자치 공화국, 자치 지역, 변경주, 시 등의 단위에서 연방주체들은 중앙으로부터 상당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연방의 구심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sup>40)</sup> 따라서 푸틴 대통령의 슬로건인 ‘강한 러시아를 건설하고, ‘수직적 권력(power vertical)’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권력의 강화와 지방권력의 약체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푸틴 대통령이 취한 첫 번째 조치는 지방자치 단체장들로 구성된 상원을 개편하여 단체장들에게는 형식적인 국가평의회에 귀속시키고 입법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였다. 동시에 연방을 7개의 대통령 직속 관할구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역에 대통령 전권 대행을 두어 지역을 관할·감독하도록 했다.<sup>41)</sup>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연방관구의 중심지역으로 기존 민족 공화국들의 수도가 어느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푸틴시기 새로운 연방관계 건설의 정책적 기반이 연방주체들의 균등화 원칙 혹은 연방구조의 지역적 원칙에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푸틴정부는 개인적 충성도와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형성된 옐친 시기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사적관계 확립전통과 민족 공화들에 대한 특별관계 수립원칙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새로운 중앙-지방관계의 지형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sup>42)</sup>

39) 박정호, *op. cit.*, p. 8.

40) Moscow(AP), "Russia Political Parties Law Backed," December 28, 2000. (검색일: 2008년 11월 17)  
<http://www.cdi.org/russia/johnson/4712.html>

41) 우평균,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 정치의 주도세력과 국내정치 동향”, 『국제평화』, 제4권 1호 (2007. 6), p. 259.

42) 일부 분석가들에 의하며, 지역적 원칙에 입각한 연방관구의 창설은 현대 러시아 연방관계에서 민족적-인종적 요소의 약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연방국가가 군관구와 동일한 형태로 창설되었다는 사실



따라서 푸틴 시기는 옐친 시기에 비해 체첸의 분리주의가 약하게 나타났다. 공화국이라는 행정상의 지위는 변함이 없었지만 이전의 공화국 우선주의와 같은 특권을 폐기함으로써 예전보다 공화국이라는 행정상 지위가 가져다주는 협상적 가치는 낮아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1999년 8월 샤밀 바샤예프가 이끄는 체첸 반군 1000여명이 다게스탄 공화국으로 침투하여 산악지역의 3개 마을을 기습 점령하여 ‘이슬람 독립공화국’을 선포함으로써 발생한 제2차 체첸전쟁을 푸틴은 무력으로 제압하였다. 제1차 전쟁에서의 비효율적인 전력운동의 경험을 반성한 러시아군이 체계적인 전술을 운용함으로써 체첸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1994년 체첸 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120만명에 달하던 체첸의 인구는 제1차 체첸전쟁을 거치면서 86명으로 줄어들었고, 제2차 전쟁을 겪으면서 다시 8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대량난민의 발생과 함께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의 건물은 90%이상이 파괴되었다.

체첸전쟁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지지를 얻은 푸틴은 결국 2000년 3월 26일 11명이 입후보한 대선에서 53.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옐친에 이어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당선된다.<sup>43)</sup> 그리고 親러시아 성향의 아흐마드 카디로프가 새 체첸 정부 수반으로 임명된 후 알루 알하노프를 거쳐 오늘날의 람잔 카디로프까지 親러 정권이 이어져오고 있다. 물론 이에 따라 체첸 분리주의는 약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에선 지금도 간헐적인 시위, 테러가 체첸 반군에 의해 발행하기도 하지만 옐친 시기와 같이 공식적인 입지는 강하지 않다.

무엇보다 최근 람잔 카디로프정권에 들어 체첸 공화국은 안정된 모습이 유지되고 있다. 그는 체첸공화국이 러시아의 연방국가임을 거듭 강조, 친러시아 성향과 분리운동 강경반대의 정책노선을 극명히 보여주는 가운데, 체첸 공화국은 지난해 말 러시아 하원선거에서 푸틴이 이끄는 여당 ‘통합 러시아’의 득표율이 99%를 넘어설 정도로 대표적인 親러시아 지역으로 변모했다. 이어 러시아의 새 대통령 메드베데프를 전폭 지지하며 절대적인 친러시아 성향을 과시했다.<sup>44)</sup> 강한 러시아를 표명하는 푸틴의 기조가 메드베데프 정권에서도 이어지는 한 강한 분리주의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D. 상대적 박탈감

체첸민족의 분리주의에 대한 기존연구는 상대적 박탈감을 그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이 많았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좌절감을 민족 집단의 정치적 행동의 일차적 동기로 보는 Kathleen M. Dowley의 이 같은 시각은 체첸민족의 수난사(受難史)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산악민족이었던 체첸을 정주시키고 농업에 종사하도록 도와준 것은 러시아였지만 그것은 또한 체첸민족의 러시아에 대한 종속(從屬)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은 많은 민족 중 오늘날까지도 끝까지 저항을 지속하는 체첸민족의 원동력이다.

제정러시아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시대에 자행된 체첸인의 강제이주 및 추방은 체첸인들의 반러 감정과 분리적 성향을 자극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볼셰비키 혁명 후 소비에트의 일원

은 권력의 중앙화와 이를 통한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푸틴의 ‘행정적 편리주의’ 사로라고도 간주하고 있다.

43) 고재남, “러시아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한반도”, 『정책연구시리즈 99-8』,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p. 58.

44) 오마이뉴스, “러 체첸공화국, 서른살 젊은 대통령 취임”, 2007.4.6일기사(검색일: 2008.11.1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2636](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2636)

뉴시스, “체첸 수도에 '푸틴 거리' 탄생”, 2008.10.28일 기사(검색일: 2008.11.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2313260>



이 된 체첸은 집단농장화로 인해 이미 고통을 경험한 바가 있다. 당시 가축과 농기구의 물수로 시작된 집단 농장화는 체첸 지역에 커다란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체첸민족에게 상처를 남긴 사건은 스탈린 시대 중앙아시아로의 대규모 집단 강제이주였다. 【아래 표2 참조】

<표2> 체첸민족의 강제이주 역사

	시기	강제이주를 초래한 배경	강제 이주지
1차	1792	세이흐 만수르(Sheikh Mansur) 주도 체첸 민족봉기	시베리아
2차	1831-1832	타임 베이볼트(Taim Beibolt) 영도 하의 반러 민족투쟁	시베리아
3차	1836-1837	이만 타슈 하지(Imam Tashu-Haji)가 이끈 반파르 투쟁	시베리아
4차	1859-1860	1859년 체첸 합병 후	오토만제국(터키)
5차	1864-1865	이만 샤밀 보이스하르(Imam Shamil Boiskhar)의 저항	시베리아
6차	1898	체첸에서 일어난 민중반란	시베리아
7차	1913	젤리만 구쉬마주토(Zelimhan Gushmazuko) 주도의 체첸혁명	시베리아
8차	1920년대와 1930년대	농업집단화에 대한 체첸의 저항	시베리아
9차	1944	체첸민족이 독일 파시스트 지배에 협력했다는 혐의	중앙아시아

※ 출처: Aminat Saieva, "Deportations and Genocides of Chechen Nation" (Feb. 28, 2002). <http://www.chechenworld.com/article/genocide.html>. 홍완석, op. cit., p. 252에서 재인용.

1943년 11월 약 7만명의 카라차이인을 시작으로 이듬해 2월 인구 20만명의 체첸인과 9만명의 잉구세타인, 뒤이은 3월에는 3만 5천명의 발카르인들이 화물열차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추방당했다.<sup>45)</sup>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보통 군대처럼 가장한 비밀경찰부대가 체첸 잉구쉬 자치공화국에 침입해서 2월 23일, 마을사람들이 붉은 군대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을 때 갑자기 군대에 포위되어 강제이주를 통고 받았다고 한다.<sup>46)</sup>

많은 사람들이 강제 이송 도중에 기아와 전염병으로 사망하였고, 중앙아시아에 도착한 이후에도 자신들의 생활환경과 전혀 다른 새로운 지역에 적응하며 살아야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컸다.<sup>47)</sup> 당시 이주인 45만 명 가운데 약 7만 명 이상이 이주와 정착과정에서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카프카즈 전쟁이후 체첸 민족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배출하였던 민족사적 대참사였다고 명명할 수 있으리라.

무엇보다 체첸민족에게 있어 분개할 사실은 강제이주의 배경에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는

45) 유의정, op. cit., p. 71.

46) Bohdan Nahaylo and Victor Swoboda, 『러시아 민족문제의 역사』, 정옥경 옮김 (서울: 신아사, 2002), p. 144.

47) 전해 내려오는 강제 추방방식을 설명하면, 스탈린 정부는 카프카즈인들이 가지고 있는 호전적 기질을 고려하여 우선 지도급 인사들을 '적군의 날(2월 23일)에 초대하여 환심을 산 후에, 주요 인사들이 연회장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 사이, 가족들을 중앙아시아행 가축열차에 실어 보내고, 연회장에서 만취한 주요 인사들을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하여 강제추방 시켰다는 것이다. Gaffrey Hosking, A History of Soviet Union, 『소련사』, 김영석 옮김(서울: 홍성사, 1988), p. 254.; 황성우, 김선래, “北카프카즈 지역갈등의 사회문화적 요인 - 체첸공화국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22권 1호, 2006, pp. 162-164.

것이다. 추방이 시행된 지 2년 뒤인 1946년 6월 25일자로 발표된 러시아 연방 최고회의의 ‘체첸노·잉구셰티야 소비에트 공화국의 폐지와 그 거주민의 추방’에 관한 법령을 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체첸인과 잉구셰티야인들이 자발적으로 독일군에게 협조하여 소비에트 정부에 반항한 것을 추방의 이유로 규정<sup>48)</sup>하는 소비에트의 억지스러운 주장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스탈린 정부의 논리에는 두 가지 모순이 존재한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단 한 명의 독일군도 체첸인과 잉구쉬인의 거주 지역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체첸인과 잉구쉬인이 독일군 부대에 가담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체첸-잉구셰티야에서는 공화국이 존재하고 있던 기간 동안 여하한 강제 동원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sup>49)</sup> 오히려 이들 민족의 反소비에트 의식과 저항<sup>50)</sup>을 무력화시키려는 계산에서 자행된 일이었다. 즉 스탈린은 이들 민족을 삶의 터전으로부터 우선적으로 격리시키고, 언어·종교·전통관습·경제방식에 이르기까지 민족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sup>51)</sup> 체첸인 및 북카프카스인들의 존재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민족말살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다.<sup>52)</sup> 또한 소비에트의 이슬람세력들이 단일화하고 외부세력과 연계하여 소비에트정부에 저항하는 것도 스탈린 정부로서는 체제유지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었다.<sup>53)</sup>

이와 같은 소비에트의 철저한 의도와 계산아래 이루어진 강제이주는 1944년 2월이 그 처음이 아니다. 사실 독일군 협력 혐의로 추방되기 이전, 그들의 일부는 이미 1937년에 추방되었었다. 1930년대 중반, 스탈린의 지독한 국수주의적 성향을 극명하게 보여줬던 숙청바람으로 1937년 여름부터 1938년까지 체첸-잉구쉬 자치 공화국을 포함한 북카프카스 전역에서 지식인과 지방당 간부들이 총 10만명이 체포되어 일부는 처형되고 나머지는 타지역으로 강제 추방되는 비운을 겪은바가 있다. 체첸의 수난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1859년 제정러시아에 복속된 이래 체첸인들은 슬라브 민족과의 동화를 거부하고 중앙정부에 권력에 저항한다며 무자비한 인종 학살을 경험했고, <표 2>체첸민족의 강제이주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총 9차례에 걸쳐 터키, 시베리아, 중앙아시아지역 등으로 강제 유형을 당했다.

1953년 스탈린의 죽음은 강제이주 정책에 역설적인 변화를 몰고 왔다. 이는 1953년 스탈린 사후, 그리고 1956년의 소련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에 민족에 대한 억압정책이 철회되면서 강제이주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났지만 오히려 민족적 갈등을 양산하는 결과만 낳았

48) Abdurahman Avtorikhanov, "The Chechens and the Ingush during the Soviet period and its Antecedents, in marie Broxup, *The North Caucasus Barrier: The Russian Advance towards the Muslim World*(NY: St. Martin's press, 1992), p. 147.

49) 현승수, "북카프카스 민족주의에 관한 연구", 『러시아지역연구』 (서울: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연구소, 1997), p. 120. 당시 독일군대가 몇 개월 동안 점령하고 있던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민족은 타타르인과 칼미크인들 밖에 없었다.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Bohdan Nahaylo and Victor Swoboda, op. cit., pp. 143-145 참조.

50) 모스크바 당국의 추방 결정의 실적인 원인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체첸인과 잉구쉬인은 제정 시기로부터 북코카서스의 대러시아 투쟁에서 언제나 선봉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 지역에서 反러시아적 감정이 가장 강했다. 따라서 스탈린은 체첸민족을 본토에서 추방함으로써 북코카서스 지역 내 팽배해 있는 反소비에트 감정을 케멸시키고자 했다. Ibid., p. 122.

51) 스탈린 정부의 민족말살정책에도 불구하고 강제추방 된 체첸인들은 수피파 교도들의 노력으로 유배지역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57년 1월에 복권된 체첸인들이 귀향했을 때에도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수피파 조직이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신양섭, "이슬람권 소수민족 분쟁의 전개과정", 『중동연구』, 제18권, 제2호(1999. 12), pp. 25-52.

52) Hosking, op. cit., p. 254.

53) Ibid., pp. 242-243.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후루시초프의 복권 조치<sup>54)</sup>에 의해 1956년 말부터 1957년 초까지 스탈린 하에서 전쟁 전후로 이주되었던 민족들 가운데 발카르인, 잉구쉬인, 카무크인, 카라차이인들에 대해서 다시금 자치영토가 회복되었다.<sup>55)</sup> 체첸인들도 고향으로 돌아와 1957년 1월 9일 자치공화국을 재수립했다. 하지만 귀환 민족들은 자신들의 영토에 타민족<sup>56)</sup>이 거주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는 곧 민족 간의 갈등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체첸귀향민들과 체첸지역의 새거주민들 사이의 적대감은 민족 간의 긴장을 격화시켰고, 결국 폭력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 가운데 가장 최악의 사건은 1958년 그로즈니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때에 러시아인 주민이 3일 동안 폭동에 휩쓸리고, 체첸인 다수가 학살되었지만 그 숫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러시아인들이 사용한 슬로건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다고 한다. ‘스탈린주의적 민족정책 만세!’, ‘카프카즈 산맥으로부터 체첸인과 잉구쉬인을 몰아내자!’, 잉구쉬의 경우에는 더욱 비통해졌다. 잉구쉬 프리고로드니이 지역이 북오세티아 자치공화국으로 넘어간 것이다.<sup>57)</sup>

이렇듯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온 체첸민족에게는 공화국을 재건설해야하는 부담감과 함께 사회, 정치적 불만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인 상황은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체첸과 체첸인들은 사회주의 제도에 적합하지 않고 민족적인 선입견 경향이 있다고 여겨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중앙 공산당과 KGB의 특별한 주목을 받는 대상으로 남아있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sup>58)</sup>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소련 최고회의 간부회의는 ‘강제이주를 당한 강압적 조치들이 불법적이고 범죄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에 대하여’라는 선언(1989년 11월 14일)을 채택하였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정치적 억압이나 강제이주를 당하여 시민적·법적 권리를 상실했던 많은 소수민족들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시켜주었다. 또한 옐친이 등장하여 1991년 4월 26일에는 러시아연방에 의해 ‘탄압받은 민족들의 복권에 대한 러시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법’이, 그리고 1992년 4월에는 러시아 연방공화국 최고회의의 ‘탄압받은 민족의 복권에 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법률’이 각각 채택되어 탄압받은 민족들의 국가구성 권리와 정치적 복권 그리고 사회문화적 복권 등

54) 당시 강제이주 대열에서 도망친 소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카프카즈 산악에 거주하며 게릴라전으로 소련군을 공격했다. 그들은 소련 당국의 민족 말살정책에 대항하고 체첸-잉구쉬인의 연대감을 북돋우며 고향으로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수피 타리카스(tariqas; brotherhoods)라는 단체이다. 이들의 노력과 후루시초프의 개혁노선(민족간 화해와 해빙의 차원)에 힘입어 1957년 체첸민족은 고향으로의 귀환과 함께 자치공화국으로 복원되었다.

55) 불가독일인과 크림 타타르인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자치영토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가운데는 역으로 1940년에 핀란드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세워졌던 카렐공화국이 1956년에 다시 자치공화국으로 환원되기도 하였다. 심현용(한국-시베리아센타 상임연구원),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민족정책과 러시아한인 사회의 당면과제", [http://cafe.naver.com/northroo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17](http://cafe.naver.com/northroo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17)참조.(검색일2008.6.3).

56) 체첸인들은 중앙아시아로, 러시아인들은 체첸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는 민족 융합정책의 일환으로, 귀환한 체첸인들은 이미 이곳에 이주하고 정착해 살던 러시아인들과 땅 소유 문제 등으로 많은 갈등을 가졌다. 당시 스탈린 정권은 강제이주를 ‘위대한국가적대사업’으로 찬양하면서도 비밀리에 추진하였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민족문제는 없다”는 미명하에 강제이주의 부당성과 폐해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도록 제약하였다.

57) Bohdan Nahaylo and Victor Swoboda, op. cit., p. 186.  
1944년 체첸인과 잉구쉬인들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후 체첸-잉구쉬 자치공화국은 폐지되었고 해당 지역은 오블라스트(Oblast)와 공화국들에 편입되었는데, 이때 잉구쉬인들이 대대로 살아온 프리고로드 지역이 북오세티아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 1957년 체첸인과 잉구쉬인들이 귀향하고 체첸-잉구쉬 자치 공화국이 부활되면서, 과거 프리고로드 지역에 거주했었던 잉구쉬인들도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지역은 이미 북오세티아의 영토였고, 이후 겪어야했던 민족적 차별과 억압이 30여년이 지난 이후 무력충돌을 야기했다. 유의정, "북카프카즈지역의 민족 갈등", 『카프카즈저널』, 제3호 (2004. 3), pp. 21-27.

58) Valery. A Tishkov, op. cit., p. 189.

이 가능하게 되었다.<sup>59)</sup> 하지만 상기의 법령들은 곧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한 옐친의 공약 차원의 발언이었을 뿐 실제적으로 탄압받은 민족에 대한 배상이나 경제적 지원, 혹은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들에 대한 정착 지원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체첸민족에게 행해진 국가 권력의 주도로 자행된 강제이주 정책은 여러 민족의 민족정체성을 없애고 하나의 소비에트국민으로 통합하려는 ‘소비에트화’, ‘민족융합정책’의 일환이면서 집단적 ‘인권탄압’ 행위이다. 이것은 국제주의 및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혁명 이전 시기에 존재하던 다수의 고립된 민족보다는 큰 민족 공동체를 수월히 다스리고자 했던 소련의 계산이다. 결국 강제된 이주민으로서 낯선 곳, 낯선 사람, 낯선 문명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애환과 설움은 체첸인들의 고통에 사무친 원한으로 남아 분리주의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음은 자명한 일이다.

### E. 동원화와 리더십

체첸민족의 분리주의를 동원화와 리더십 특성에서 도출할 수 있다. 상기 언급했듯이 Daniel S. Treisman이 제시한 이 이론적 동인은 민족적 조직을 세울 수 있는 민족 구성원의 동원여부와 강력한 지도자의 존재유무가 분리주의 강도와 연관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선 체첸은 다른 공화국과는 달리 자민족이 타민족보다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분리주의를 추구 할 수 있는 인구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러시아연방의 행정주체 중에서 민족구분에 따라 분류한 공화국은 21개인데, 이중 6개 공화국만이 전체주민의 50%를 넘고 있다. 이에 비해 자민족 구성 비율이 70%가 넘는 체첸공화국이 독립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가진 셈이다.<sup>60)</sup> 특히 러시아인의 비율이 전체주민의 50%를 넘는 민족공화국들의 수가 9개에 이른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볼 때, 체첸공화국에서 자민족 인구비중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생각된다. 재정러시아 시기의 인구통계에 의하면 체첸민족은 290만명, 러시아인 77만명, 잉구쉬 민족이 15만명, 소련 때 체첸 민족은 잉구쉬 민족과 함께 하나의 자치 공화국을 형성하고 있었다. 1989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당시 북카프카즈에 위치한 체첸노-잉구쉬 공화국은 총 127만명의 인구 중에서 체첸 민족이 74만명, 잉구쉬 민족이 16만명, 그리고 러시아 민족이 29만으로 자민족 구성 비율이 항상 높았음을 볼 수 있다. <표3 참조>

체첸의 분리주의와는 달리 제2차 체첸전쟁이 시작 될 당시 러시아 연방에 남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체첸과의 차별성을 보여줬던 다게스탄의 경우는 자민족 인구비중이 갖는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다게스탄 공화국은 34개의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러시아에서 가장 인종적으로 복잡한 공화국이다. 주요 민족<sup>61)</sup>으로는 아바르인, 다르긴, 레즈긴, 쿠미크인 등이다. 복잡한 민족 구성과 더불어 다게스탄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민족이 지배하거나 일부 민족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모두의 공존을 지향하는 통치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59) 심현용, 김재기, "러시아 재이주(再移住)한인의 난민적 상황과 인권보호", 『민주주의와 인권』, 제4권 1호 (2004. 4)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pp. 134-137.

60) 이들 6개 공화국은 체첸공화국, 잉구세티야 공화국, 투바공화국, 추바쉬 공화국, 다게스탄 공화국, 북오세티야 공화국이다. 특히 하카시아 공화국의 경우, 전체 인구 중에서 약 10% 정도만 차지할 정도로 자민족 구성 비율이 낮다. 황성우, 김선래, “북카프카즈 지역갈등의 사회문화적 요인, 체첸공화국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22권 1호, 2006, p. 155.

61) [http://ko.wikipedia.org/wiki/%EB%8B%A4%EA%B2%8C%EC%8A%A4%ED%83%84\\_%EA%B3%B5%ED%99%94%EA%B5%AD](http://ko.wikipedia.org/wiki/%EB%8B%A4%EA%B2%8C%EC%8A%A4%ED%83%84_%EA%B3%B5%ED%99%94%EA%B5%AD) 에서 구체적인 구성비율 참조. (검색일: 2008.11.18).

다게스탄 사회는 자마아트(djamaat)라고 해서 원시적 협의체가 존재했었는데 각 종족 대표들의 협의적 통치방식이다. 현대에 이르러 자마아트 전통은 이어지고 있는데 다게스탄의 상원 의장이 구성 민족들 간에 돌아가면서 이루어지는 로테이션 제도에서 볼 수 있다.<sup>62)</sup> 이같은 요인들로 인해 다게스탄은 체첸만큼의 분리주의를 위한 인구적 동원이 힘들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쉽게 러시아 연방에 귀속될 수 있었다고 보여 진다.

<표 3> 체첸 공화국의 주요 민족 구성 비율

	1926	1939	1979	1989	2002
Chechens	293,190 (72.0%)	360,598 (64.4%)	611,405 (52.9%)	734,501 (57.82%)	1,031,647 (93.5%)
Russians	77,274 (19.0%)	157,621 (28.1%)	336,000 (29.07%)	293,771 (23.12%)	40,645 (3.7%)
Kymuks	2,217 (0.5%)	3,305 (0.6%)	8,100 (0.7%)	9,583 (0.78%)	8,883 (0.8%)
Ingushes	154 (0.1%)	4,336 (0.8%)	134,744 (11.66%)	163,762 (12.89%)	2,914 (0.3%)
Others	34,112 (8.4%)	34,088 (6.1%)	65,556 (5.67%)	68,542 (5.39%)	19,597 (1.8%)

출처: 자료를 근거로 본인 작성

다음으로 분리주의의 동인이 된 것은 체첸민족에게는 민족적 자기 인식을 자극하고 민족 감정을 끊임없이 불어넣어 준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가지 모하메드(Ghazi Muhammad)를 비롯하여, 함자트 백(Hamzat Bek), 셰이흐 만수르(Shei Mansur), 이맘 샤밀(Imam Shamil), 그리고 초대 대통령인 두다예프(Dudaef) 등이다. 특히 1834-1859년 카프카즈 전쟁을 이끈 이맘 샤밀은 전공(戰功)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그는 상당한 수준의 이슬람 지식과 탁월한 정치적, 군사적 능력을 겸비했다. 샤밀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였고, 규율을 위배할 경우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을 만큼 엄격했다. 그의 목적은 다른 부족들을 정복하는 것도 아니었고, 체첸인, 카바르다인, 오세티아인 위에 군림하는 자기만의 통치 권력을 구축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의 목적은 오로지 모든 부족을 초월하여 도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충분히 러시아 제국주의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슬림 단일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sup>63)</sup> 이점에 있어서 그는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큰 호응을 받으면서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두다예프도 주목할 만한 지도자이다. 옛 소련의 사성장군이었던 그는 대통령 취임직후인 1991년 11월 2일, 체첸의 완전 독립을 선언할 만큼 민족의식이 강한 뜻심 있는 인물이었다. 당시 그는 코란에 손을 얹고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서 체첸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하는 적들을 대항하여 죽음으로써 싸울 것을 맹세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 대통령 엘친은 다른 민족들의 독립의 도

62) 정옥경, “다게스탄은 왜 체첸과 다른가?”, 콜로키움 발표(2004.4.29)에서 발췌.

63) Ibid., pp. 153-154.

미노 현상을 우려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로즈니로 내무부 소속 타격부대를 급파하였다. 하지만 두다예프의 지도하에 강력하게 결집된 체첸의 국토수비대는 철저한 준비로 이를 막아냈다. 결국 두다예프의 강경한 대응과 당시의 당 서기장인 고르바초프의 반대로 비상계엄령 해지와 양자 협의가 이루어졌다.<sup>64)</sup> 비록 지금까지 체첸의 분리 독립 열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두다예프의 강인한 리더십은 체첸민족의 반러감과 민족적 주체성을 고취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민족조직을 결성하여 분리 독립운동에 동원할 수 있는 지도자의 존재여부와 동원 가능한 자민족이 얼마나 되는가는 분리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화국 지도자가 또한 민족주의 조직의 지도자였던 체첸은 분리주의 성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 IV. 결론

체첸 전쟁은 러시아 연방에서 발생하였던 가장 강력한 분리주의 투쟁이다. 표면적으로는 러시아 연방에서 탈퇴하여 완전한 독립 국가를 이루려고 하는 체첸 공화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러시아 간의 무력분쟁이 원인이겠으나, 러시아 내부 또는 체첸 내부에서 권력 장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 정치적인 측면도 있고,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충돌이라는 종교적 측면도 내재해 있으며, 서방과 러시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이해가 교차하는 국제적 측면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체첸 분리주의는 정치적·경제적·제도적 측면 모두를 고려한 폭넓은 분석이 필요했다.

따라서 본 논고는 ‘Kathleen M. Dowley와 Daniel S. Treisman’의 분리주의 이론을 분석의 틀로서 적용하여 체첸민족의 분리주의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과연 어떤 이론적 시각이 체첸민족의 분리주의 동인(動因)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는가? 각각의 이론이 분리주의 강도(強度)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를 연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애초에 러시아 민족과는 다른 민족 정체성을 분리주의의 동인으로 보고 있는 근본주의 시각은 체첸 분리주의에 영향을 미친 가장 오래된 동인이나, 같은 전통적 구조아래 살아온 다케스탄의 다른 행보를 주목해볼 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 반면에 이슬람이 분리주의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는 점과 산악 정체성이라는 북카프카즈 전체의 특성을 민족 특유의 기질과 독특한 전통을 잉태하는 태생적 정체성으로 전화된 점은 체첸 분리주의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었다. 체첸 분리주의의 이슬람적 동인은 향후에도 체첸 독립운동을 지속하는 원동력이자 러시아와의 갈등을 영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체첸이 가진 자원으로 체첸 분리주의를 규명하는 도구주의 시각은 러시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지전략적 이해가 얽힌 중요한 동인이었다. 풍부한 농산물과 에너지 자원은 체첸민족에게 분리 독립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은 동시에 러시아와의 갈등을 첨예 시킨 분명한 이유였다.

셋째, 지역의 지위 高下 여부가 분리주의 및 협상력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원동원

64) [http://en.wikipedia.org/wiki/Dzhokhar\\_Dudayev](http://en.wikipedia.org/wiki/Dzhokhar_Dudayev); [http://en.wikipedia.org/wiki/Boris\\_Yeltsin](http://en.wikipedia.org/wiki/Boris_Yeltsin) 참조 (검색일: 2008. 11. 20)

의 시각은 인구 120만에 불과했던 체첸민족이 공화국 지위를 통해 분리주의와 관련한 보다 나은 협상력을 가지게 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때 협상력과 분리주의의 강도는 러시아 연방관계 즉 중앙-지방관계의 발전 과정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요컨대, 공화국 우선주의 원칙을 표명하는 옐친 시기에는 공화국이라는 행정상 지위가 가지는 협상력이 높았고, 이에 따라 체첸 분리주의도 두 차례의 전쟁의 양상으로 표출될 만큼 강했다. 반면에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을 추구한 푸틴 시기에는 옐친 시기에 비해 강한 협상력을 가지지 못했다. 푸틴이 공화국 우선 원칙의 폐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국이라는 행정상 지위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은 크게 없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체첸 분리주의도 다소 완화된 양상을 보였다.

넷째, 연방 내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집단은 분리주의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시각으로, 그 근거로서 체첸민족의 강제이주역사를 살펴보았다. 이같은 역사는 체첸민족에게 국한된 경험은 아니지만 그 강도와 다발적 횡수를 고려해 본다면 체첸의 결사항쟁에 영향을 주기에는 충분했을 것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강조한 동원화와 리더십 특성은 민족적 조직을 세울 수 있는 민족 구성원의 동원여부와 지도자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분리적 성향을 결정한다고 본 시각이다. 체첸은 자민족 구성 비율이 상당히 높아 분리주의에 동원 가능한 인구적 요건이 충족되어 있었고, 민족적 자의식이 강한 지도자의 존재는 체첸 분리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상기 5가지 시각은 체첸 분리주의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동인들이었다. 각각의 동인이 체첸 분리주의에 대해 갖는 함의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다섯 가지 모두 체첸 분리주의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로서 적용할 수 있었다.

아울러 5가지 시각의 분석결과가 갖는 각각의 함의를 정리해보면, 도구주의적 시각과 자원동원의 시각은 아직까지 미제로 남은 러시아와 체첸간의 응어리진 갈등을 가장 잘 말해주는 동인인 동시에 향후 두 민족 간의 행보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근본주의적 시각에서 이슬람적 동인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근본주의 시각에서의 전통적 사회구조 및 관습법 그리고 상대적박탈감의 동인들은 체첸 분리주의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나 소비에트 이후 오늘날의 러시아와 체첸의 관계를 규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동원화 및 리더십도 분리주의의 지속적인 동인이 되기는 힘들 것 같다. 무엇보다 체첸에 親러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분리주의를 자극하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체첸 분리주의는 다각적인 관점과 국내의 내·외부적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체첸 분리주의는 러시아와 체첸이 근본적인 서로의 타협점을 찾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될 것이다. 이는 두 민족 간의 응어리진 갈등이 언제 폭발할지 모를 뇌관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고상두, “러시아 연방주의 현실과 체첸분쟁”, 『국제정치논총』, 제37권 2호, (1997)
- 고재남, “러시아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한반도”, 『정책연구시리즈 99-8』,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기연수, “러시아의 新국가전략과 北카프카즈 지역의 지정학적 의의”, 『슬라브학보』, 제22권 1호, (2006)
- 김상원, "러시아의 국가전략으로서 북카프카즈 에너지 경제학", 『슬라브학회』, 제22권 1호, (2006)
- 문명식, “러시아 민족정체성의 확립 과정에서의 정교와 이슬람”, 『中蘇研究』, 통권 108호 (2005/2006)
- 박정호, “북카프카즈 지역분쟁의 정치 경제적 요인 분석-체첸분쟁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21권, 제2호, (2005. 12)
- 박정호, “러시아 연방관계의 법제적 고찰”, 『슬라브학보』, 제22권, 제1호, (2006)
- 박대성, “러시아의 북카프카즈 병합과정과 의미”, 『슬라브학보』, 제21권 1호, (2005)
- 신양섭, "이슬람권 소수민족 분쟁의 전개과정", 『중동연구』, 제18권, 제2호, (1999.12)
- 신형직, 『러시아의 정치』, (1995)
- 심헌용, "소비에트 민족정책에 대한 재평가: 과도기 러시아연방에 대한 시사점", 『中蘇研究』, 통권 88호 (2000/2001)
- 심헌용, 김재기, "러시아 재이주(再移住)한인의 난민적 상황과 인권보호", 『민주주의와 인권』, 제4권 1호 (2004. 4)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우평균,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 정치의 주도세력과 국내정치 동향”, 『국제평화』, 제4권 1호 (2007.6)
- 유의정, "북카프카즈지역의 민족 갈등", 『카프카즈저널』, 제3호 (2004.3)
- 유의정, "체첸-러시아 분쟁에 관한 연구: 체첸의 문화와 사회적 특징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 16권 2호 (2000)
- 정세진, "북카프카즈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제28권 1호 (2007.8)
- 정옥경, “다게스탄은 왜 체첸과 다른가?”, 콜로키움 발표 (2004.4.29)
- 최한우, 『중앙아시아학 입문』, 서울: 피내기, (1997)
- 황성우, "러시아의 카프카즈 병합과정", 『카프카즈 저널』,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제5호 (2004.5)
- 황성우, 김선래, “北카프카즈 지역갈등의 사회문화적 요인, 체첸공화국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22권 1호, (2006)
- 현승수, "북카프카즈 민족주의에 관한 연구", 『러시아지역연구』 (서울: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연구소, 1997)
- 현승수, “북카프카즈 와함주의 문제의 기원”, 『슬라브연구』, 제20권 1호(2004)
- 현승수, “체첸전쟁과 국제 이슬람 무자히딘 운동”,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7권 2집 (2007)
- 홍완석, "험난한 여정, 러시아의 체첸 분쟁: 원인과 경과, 그리고 전망" (국제정치학회 2005 여름 정기학술회 발표)



- Bohdan Nahaylo and Victor Swoboda, 『러시아 민족문제의 역사』, 정옥경 옮김 (서울: 신아사, 2002)
- Gaffrey Hosking, A History of Soviet Union, 『소련사』, 김영석 옮김(서울: 흥성사, 1988)
- Abdurahman Avtorikhanov, "The Chechens and the Ingush during the Soviet period and its Antecedents, in marie Broxup, The North Caucasus Barrier: The Russian Advance towards the Muslim World(NY: St. Martin's press, 1992)
- Branko Milanovie, "Why Have Communist Federations Collapsed?", Challenge 37(March-April), (1994)
- Daniel S. Treisman, "Russia's ethnic Revival : The Separatist Activism of Regional Leaders in a Postcommunist Order", 『World Politics』, (Jan 1997)
- Galina Yemelianova, "Ethnic Nationalism, Islam and Russian Politics in the North Caucasus," Christopher Williams · Thanasis D. Sfikas (ed.), Ethnicity and Nationalism in Russia, the CIS and the Baltic States (Ashgat; USA, 1999)
- Gurr. T, "Why Men Rebe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 Kathleen M. Dowley, "Striking the Feeral Bargain in Russia: Comparative Regional Government Strategie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31, No. 4, (1998)
- Mike Bowker, "Conflict in Chechenya", 『Russian Politics under Putin』, Manchester University, (2004)
- Valery. A Tishkov, "Ethnicity, nationalism and conflict in the after the Soviet Union",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PRIO),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UNRISD), (1997)
- Э. А. Баграмов, Разделит участь Союза ССР? : Кризис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и федеральн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Москва : РНИСиНП, 1993)
- 매일경제, “러, 다게스탄서 반군 공격으로 경찰 7명 숨져”, 2008.10.21 기사(검색일: 2008.11.1)
- 세계일보, "러시아 분리독립 유혈충돌 계속되나... 잉구세티아서 러시아군 피습 11명 사상", 2008.10.20 기사(검색일: 2008.11.1)
- Vladimir Galin, "체첸, 복수는 확대 재생산 된다", (한겨레 21 주간지의 특집기사 제328호, 2000.10.12)
- 뉴시스, “체첸 수도에 '푸틴 거리' 탄생”, 2008.10.28일 기사(검색일: 2008.11.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2313260>
- 심헌용(한국-시베리아센터 상임연구원),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민족정책과 러시아한인 사회의당면과제", (검색일: 2008.6.3).  
[http://cafe.naver.com/northroo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17](http://cafe.naver.com/northroo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17).

오마이뉴스, “러 체첸공화국, 서른살 젊은 대통령 취임”, 2007.4.6일기사, (검색일: 2008.11.1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2636](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02636)  
Moscow(AP), "Russia Political Parties Law Backed," December 28, 2000. (검색일: 2008.11.17)

<http://www.cdi.org/russia/johnson/4712.html>

[http://en.wikipedia.org/wiki/Dzhokhar\\_Dudayev](http://en.wikipedia.org/wiki/Dzhokhar_Dudayev)

[http://en.wikipedia.org/wiki/Boris\\_Yeltsin](http://en.wikipedia.org/wiki/Boris_Yeltsin) (검색일: 2008.11.20)

[http://ko.wikipedia.org/wiki/%EB%8B%A4%EA%B2%8C%EC%8A%A4%ED%83%84\\_%EA%B3%B5%ED%99%94%EA%B5%AD](http://ko.wikipedia.org/wiki/%EB%8B%A4%EA%B2%8C%EC%8A%A4%ED%83%84_%EA%B3%B5%ED%99%94%EA%B5%AD) (검색일: 2008.11.18)